

한·중 전자부품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체결

-동북아 B2B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산업자원부와 본회는 중국 신식산업부(ETIRI)와 '06. 3. 6.(월) 중국 북경 ETIRI 회의실에서 한·중 전자부품 DB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산자부 생활산업국장(조석)과 신식산업부 과학기술국장(Wen Ku)이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 MOU체결기관 : 전자산업진흥회(부회장) ⇔ ETIRI (Shi Huaicheng 소장)
- * 전자과학기술정보연구소(ETIRI) : 전자, 기술정보 연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한·중간 MOU 체결은 산업자원부(진흥회)가 추진 중인 동북아 전자산업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04. 7., 한·일 전자부품 시스템 연계에 이어 나아가 중국으로 확장하여 한중일 전자부품 산업의 B2B 거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를 기점으로 동북아 3국의 전자부품 분야 e-Biz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신식산업부 직속 연구기관인 ETIRI에서 현재 중국 전자부품 및 제조회사 관련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번 한·중간 MOU 체결이후 실무 Working Group을 통한 양국의 전자부품 DB시스템 상호연계, 부품 분류체계 정합, Contents 교환·분석으로 양국 전자부품이 On-Line 상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비교검색을 할수있게된다.

현재 운영 중인 한·일 전자부품 DB시스템은 '00년 산자부 주관하에 B2B 시범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부품 검색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시스템은 ISO/IEC 등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체 및 Set업체가 참여하여 업체 및 부품정보 관리, 업체 간 거래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전자부품 DB를 구축하고,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동북아 전자산업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이후에는 3국의 전자부품 및 세트업체들은 보다 쉽게 필요한 부품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 및 전자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전자산업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목표

- 한중일 3국간 부품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부품 On-line검색 환경 및 B2B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한다.

□ 주관기관 및 예산

- 주관기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KEA)
- 사업 기간 및 예산 : '05.7 ~ '09.6(5개년) 총 56억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기간	'05.7~'06.6	'06.7~'07.6	'07.7~'08.6	'08.7~'09.6	'09.7~'10.6
예산	8억원	8억원	15억원	15억원	10억원

□ 추진체계

- 협의체 산하에 협력의제별 분과위원회(표준화·시스템·마케팅) 운영
- 기획팀, 개발팀, 운영위원회 운영 및 전자거래협회등과 협력체계 구축

